

'25. 7. 25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○ 美 국방부, 저가 드론 생산 확대

- 7.17 美 국방부는 드론 생산을 방해하는 정책을 철회(7.10), △미국산 드론과 부품 구매 우선 △저가형 드론으로 전투부대 무장 △드론 이용 훈련을 목표로 저가 드론 생산을 혁신하여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
 - ※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한 드론 생산을 위해 승인·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드론 훈련을 위한 공역 접근성을 확대 할 것이라고 공표

○ 美, 안보 위협 차단 목적으로 中기술 해저 케이블 사용 금지 추진

- 7.17 언론은 美 연방통신위원회(FCC)가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케이블에 대해 내·외부적 보안 요건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 테러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, 연결 전면 금지 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
 - ※ FCC는 최근 他國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의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後 조치하는 사안으로 同 안건을 내달 7일 공개회의에서 표결할 예정

○ 美 뉴욕시, '3D 프린팅 총기 제조' AI 자동 차단 모색

- 7.21 언론은 뉴욕 경찰국이 한 공유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수백 개의 총기 관련 3D 프린팅 파일을 발견했으며 뉴욕시는 3D 제조사와 3D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차단 목적 AI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
 - ※ 3D 프린팅 총기들은 공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고스트 건(Gost gun)으로 불리며, 이를 사용해 범행 할 경우 범인 파악과 체포에 어려움이 크다 부언

○ 美, 파할감 공격 배후 자처한 '저항 전선' 외국테러조직 지정

- 7.22 언론은 미국이 지난 4.22 인도에서 발생한 파할감 테러 공격*의 배후인 '저항 전선'을 외국테러조직(FTO)로 지정했다고 보도했으며, 美국무장관은 이 단체가 다른 UN지정 테러단체의 대리자라고 설명
 - *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국경분쟁이 발생 중인 잠무-카슈미르 지역의 관광지 파할감에서 무장 괴한들이 관광객들에게 총격을 가해 26명이 사망한 테러 사건

유럽

○ 스페인, 극우세력 주도 反이민 소요 사태 발생

- 7.18 언론은 스페인 극우세력들이 지난 9일 60대 남성이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을 '이민자에 대한 보복'으로 선동하며 인종 차별적 폭력을 부추겨 反이민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보도

※ 극우세력들은 '이민자 사냥'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용의자 명단, 폭력 영상들을 유포하는 방식의 증오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부언

○ 英, 테러단체 가입 및 활동을 위해 시리아 방문했던 자국민 유죄판결

- 7.21 언론은 英 법원이 '18년 이슬람 무장세력에 가입한 후 활동하기 위해 시리아로 갔다가 '24년 영국으로 귀국하던 중 체포된 「이사 기가」에게 테러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보도

아 테

○ 韓 카카오, 카톡 금지 '극단주의 정보'를 '유엔 지정 테러단체'로 수정

- 7.19 언론은 카카오가 정치적 해석 논란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톡의 제재 사항 중 '폭력적 극단주의 정보'를 '유엔(UN)이 지정한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 관련 정보'로 오는 25일 개정한다고 보도

※ 카카오는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'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' 조항의 구체적 예시를 모두 삭제

○ 韓,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용의자 검거

- 7.21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집안에 인화성 물질 등으로 폭발물을 제작한 60대가 20일에 검거되었으며, 용의자는 범행도구인 사제총기를 유튜브에서 배워서 제작했다고 진술

※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총포 등은 판매 및 소지할 수 없으나, 부품단위의 유통이나 해외 유튜브 등을 통한 사제총기 제작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 발생

역사 속 테러사건

알샤바브, 모가디슈 內 튀르키예 대사관 자살 폭탄테러

- '13.7.27.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튀르키예 대사관을 테러하여 대사관 경비대원 등 12명이 사망(3명 사망 포함)
 - 테러범들은 폭탄을 장착한 차량을 대사관 인근에서 폭발시킨 후 대사관 침입을 시도하였으나, 경비원에 의해 제압되어 전원 사망
- 알샤바브는 트위터를 통해 '튀르키예 외교관 집단을 표적으로 테러를 감행했다'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배후를 자처
 - 그간 '튀르키예가 소말리아에 세속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'는 이유로 튀르키예 근로자들과 구호기관 등을 위협하다 외교시설로까지 확대
- 한편, UN·미국 국무부는 튀르키예·소말리아 등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해당 테러를 강력히 비난하며, 외교시설 보호 중요성을 거듭 강조
 - 이후 튀르키예는 소말리아 현지에 군 기지를 건설하여 훈련 시키고, 정규 외교보호부대를 파견하는 등 보호 정책을 보다 강화

테러 단체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 內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영국·캐나다('10.3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우마르」, 부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쉼역 및 케냐 內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모가디슈 시청 회의실 자폭 테러(시장 등 고위간부 8명 사망)
'18.11 모가디슈 내무부 청사 차량폭탄·총격 테러(사망 58명, 부상 106명)
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

